"반도체 특화단지·심뇌혈관연구소 장성 설립 신속 추진을"

김한종 장성군수, 국회 찾아 여야 의원 면담 등 유치 활동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발·용수 확보 방안 등 설명

김한종 장성군수가 최근 국회를 찾아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장성군에 따르면 김군수는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과 면담을 갖고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은 산업부 공모 사업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김한종 군수의 국회 방문은 오는 27일 공모 마감을 앞두고 장성 유치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광주·전남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기업 간 약속인 'RE100'을 고려했을 때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장성군은 부지와 용수 확보가 유리해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관련정책 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바이오·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장성나노산단 일원이 사업 대상지다.

충청권 오송첨단의료단지, 영남권 대구경북첨단의료단지와 함께 삼각벨트를 구축해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추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 전남도·장성군 관계자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연구소 설립을 청원하는 장성군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타당성 재조사 통과와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정부예산에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산 25억원이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장성군민과 전남도민의 숙원사업인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과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한 걸음이라도 더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김한종(왼쪽) 장성군수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게 국립심뇌혈관연구소의 신속한 장성 설립을 건의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편백숲에서 심신 치유 … 장흥으로 오세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를 찾은 탐방객들이 산림체험 프로그램으로 명상 체험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군, 숲해설 등 '우드랜드 산림체험 프로그램' 사전준비 돌입

장흥군이 2023년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림체험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우드랜드 산림체험 프로그램은 산림치유, 숲해설 교육, 유아숲 교육 총 3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산림복지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각 분야 전문 인력(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산림체험 프로그램은 우드랜드의 사계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계절별로 프로그램 구성을 달리하여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체험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해 장흥군민을 대상으로 산림치유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장흥군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2023년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위탁 운영 사업을 위해 작년 대비 13% 증가한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한다. 현재 위탁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 노인 일자리 참여자 무료 백신 접종

결핵·코로나 2가백신…검진 결과 따라 무료 치료 연계

나주시 보건소는 지난 8~9일 이틀 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결핵·잠복결핵 무료 검진과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결핵 발병 또는 코로나19 감염 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시설 종사자 33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영유아로의 결핵 전파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서다.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65세 이상 노인 결핵환자 비율은 2019년 63.7%, 2020년 64.2%, 2021년 6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와 연계 추진한 결핵 검진은 흉부 X-ray로, 잠복결핵은 인터페론감사분비검사(IGRA)로 각각 진행됐다.

검진 결과에 따라 양성자로 분류되면 관내 등록 의료기관에서 무료 치료를 받게 된다.

강동렬 나주시보건소장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결핵 발병율이 높고 특히 영유아 돌봄시설에는 감염병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기검진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결핵 사전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장성 음식점·미용실·병원에 이동식 경사로

군, 17일까지 신청·접수

장성군이 출입문이 높아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이동식 경사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인, 임산부, 영유아, 장애가 있는 주민은 건물 출입구가 높으면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문턱에 발이 걸리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장성군은 주민 이용이 빈번한 병원, 미용실, 음식점 등의 건물 출입구에 이동식 경사로를 지원해 이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1순위는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내인 소규모 편의시설이다. 바닥면적 합계 100㎡인 공동주택이 2순위,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시설은 3순위다.

지원을 희망하면 오는 17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3월 중 현장 방문을 마치고 지원대상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총 사업 규모는 60개소로 개소당 70만 원 한도다. 사업비 4200만 원 전액 군비로 편성했다.

위생업소의 경우에는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경사로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되었으며,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전액 도비 사업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에 앞장서,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추진

3억원 투입 연면적 400㎡…유사육실·진료실 등 갖춰

장흥군이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3억 원 규모의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장흥군 임시동물보호센터는 시설 노후화와 유기동물 발생 증가로 수용 가능공간이 부족해 지속적인 시설 확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로 지어지는 동물보호센터는 연면적 400㎡ 규모로 유사육실, 진료실, 격리실, 사료보관실, 운동장 등을 갖출 예정이다.

유기·유실 동물 관리를 위한 인력 또한 확보하는 중이다.

장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동물 보호센터 설치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000만 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군비 2억 1000만원을 투입해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다.

군은 준공에 앞서 사업부지를 확정짓고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휴대전화로 듣는 마을방송 서비스

'스마트마을방송' 앱 보급

강진군이 군민이라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휴대전화로 마을방송을 들을 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강진군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마을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보전달 수단인 마을방송은 그동안 잦은 스피커 고장과 울림 현상 등으로 전달의 정확성이 저하되면서 불편을 초래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군은 기존에 설치된 스피커뿐 아니라 '강진군 스마트마을방송' 앱을 통해 개인 휴대전화로 마을소식과 행정, 재난, 알림 등을 송출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 전화를 받듯이 어디서든 편하게 방송을 들을 수 있고, 마을 이장은 방송 청취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마을방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자세한 앱 사용방법을 강진군 유튜브 채널 '찐TV'에 게시했다.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년층을 위해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순회교육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를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강진군 스마트마을방송'을 검색하거나, 강진군 홈페이지 '강진군 공공앱 바로가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 망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

남해안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보

강진군은 지난 8일 '망호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의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서순철 부군수를 비롯한 내빈과 주민 등 1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망호항 어촌뉴딜300사업은 망호항을 현대적 시설로 정비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다.

2020년부터 98억여 원을 투입해 방파제 연장, 선착장 기반조성, 어업지원센터 건립, 주차장 정비, 둘레길 연장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어항시설의 현대화와 산책로 정비로 주민 소득 증대는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가우도와 연결해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순철 부군수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어촌뉴딜사업 준공을 축하드리며, 성공을 위해 애써주신 추진위원 분들과 관계자분, 주민들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도 망호항이 도약해 활기가 넘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해양레저 1번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담양군, 56개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지역 쌀·우수 농산물 판로 확보

담양군은 지난 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학교급식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교급식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 관계자, 학부모, 군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급식 지원 단가와 범위 등 지원 기준을 정했다.

지원 규모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안)학교에 6억 4000만원 ▲초·중·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10억 9000만원 등으로 총 56개교에 17억을 지원한다.

아울러 담양군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의 정확한 통계 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플랫폼'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해 담양 쌀과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